올해도 '실력 광주'

수능 1등급 비율 전국 평균 웃돌아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 수험생 최상위권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영역 최상위권(1~2 등급)비율은 2005년 이래 최저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수능 수험생 2만102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영역별 최상위인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을 전반적으로 웃돌았다.

언어영역은 6.1%로 전국 평균(4.98%) 보다 1.12%포인트, 수리 가 영역은 4.4%로 전국 평균(4.1%)보다 높았다. 수리 나 영역은 5.0%, 외국어 영역은 4.8%로 각각 전국 평균4.19%, 4.3%를 앞섰다.

올해 광주 1~2등급의 누계 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언어는 14.7%로 2.9%포인트 높았다. 어려웠던 수리 가는 13.2%로 1.6%, 수리 나는 15.3%로 3.3%, 외국어는 13.7%로 2.5%포인트가 각각 앞섰다.

지난해 1~4 등급 영역별 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언어가 50%로 3.3%포인트, 수리 나 53.6%로 0.1%포인트 감소한 반면, 수리 가는 51.8%로 1%포인트, 외국어는 53%로 1.8%포인트 상승했다.

■ 광주 수능 1~2등급 비율

(단위 : %.% 포인트)

지역	언어	수리가	수리나	외국어	평균
광주	14.7	13.2	15.3	13.7	14.2
전국	11.8	11.6	12.0	11.2	11.7
차이	2.9	1.6	3.3	2.5	2.5

〈자료 : 광주시 교육청〉

올해 1~4 등급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언어는 13.4%, 수리 가는 15.3%, 수리 나는 17%, 외국어는 11.6%가 각각 높았다.

그러나 최상위권인 1등급 비율은 전 영역에서 지난해 보다 감소했다.

영역별 1등급은 언어가 6.1%로 지난해 보다 0.2%포인트 감소했으며, 수리가는 4.4%로 2.4%포인트, 수리나는 5.0%로 4.4%포인트, 외국어는 4.8%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전 영역에 걸쳐 1등급을 받은 학생 수는 23명으로 지난해 45명 보다 22명이 줄어들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산출기준은 3+2체제(언·수·외국어+탐구 2개 영역·재수생 포함)였지만, 올해는 3+4체계를 도입했고 재수생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1~2등급 비율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평균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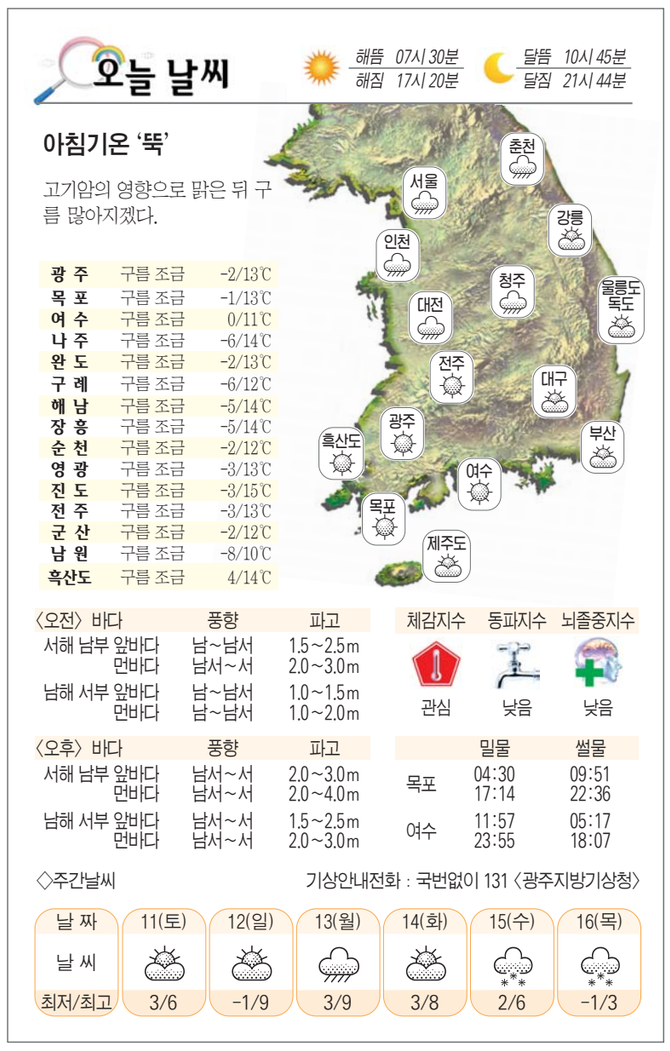
언어 영역은 17.4%에서 14.7%, 수리가는 20.1%→13.2%, 수리나 17.7%→15.3%, 외국어 16.2%→13.7%로 낮아졌다.

이 결과는 전국 평균과의 점수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이번 수능이 전반적으로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예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능 성적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상위 등급 비율이 지난해와 비슷해 전국 최고의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입시설명회 북적 광주시교육청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한 '2011학년 대입정시모집 지원전략수립 설명회'가 9일 오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사와 학부모, 수험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자율형 공립고 인기

상일여고 큰 성과 … 첫 모집 광주고·광주일고 관심

광주지역 첫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인 상일여고가 큰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광주고와 광주제일고 등 자공고의 신입생 모집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4일간 상일여고를 비롯해 광주고, 광주제일고 등 자공고 3곳이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공고 전환 이후 지난해 첫 신입생을 모집한 상일여고는 2.9대 1의 경쟁률에서 이번에는 최소 4대1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일반전형으로 선발한 2학년 학생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선호도를 반영했다. 상위 10개 고교 가운데 6위에 들었다.

이같은 추이를 감안해 광주고와 광주제일고는 신입생 모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고는 교육과정 탄력적 운영, 수준별 이동수업과 심화수업, 천연잔디구장에 기숙사 시설 보완, 전국 최고 수준의 장학금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광주제일고는 최상위권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서관 확충, 1억원이 넘는 장학제도, 교장이 직접 나선 입시설명회 등 과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일제고사 감독 거부 교사 3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9일 교과학습 진단평가(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오모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제고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고, 평가결과 조작이나 교육과정 편법·파행운영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기도 했으며 오 교사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진단평가가 일제고사의 성격을 지녀서 생기는 폐해 등을 우려해 감독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월은 형평을 잃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슈퍼박테리아 감염 2명 국내 첫 확인

대부분의 항생제에 듣지 않는 다제내성균(多劑耐性菌·일명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 2명으로부터 NDM-1(뉴델리 메탈로 베타 락타메이즈-1) 유전자를 지닌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을 분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NDM-1 CRE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 경험없이 같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장기간 입원중이었다. /연합뉴스